

전남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급증

지난해보다 14.7배 늘어... 대상농지·지급규모도 확대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중원)에 따르면 올해 경영이양 직접 지불사업 신청자는 지난 4월 30일 현재 3천508건(2천394.3ha)에 지급금액은 56억7천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9건(177.5ha) 21억5천900만원에 비해 신청건수는 14.7배, 지급비용은 2.63배가 증가했다.

이를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구례군은 지난해 1명(0.6ha)에 1천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81명(45.5ha)이 1억7000만원을 받아 713.3%가 늘었다.

또 순천·광양·여수지역이 지난해 8명(3천800만원)에서 올해 185명(2억1천100만원)으로 555.3%, 담양군이 지난해 9명(4천500만원)에서 170명(2억4천800만원)으로 551.1%가 각각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 지사의 4월 말 실적율은 16.4%~51.7%에 이르렀다. 이런 증가세는 올해부터 종전보다 대상 농지가 확대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 규모가 커지는 등 지급비율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3천508명에게 총 189억4천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를 위해 3천㎡(900평) 이하의 소유 농지는 계속 계약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 2~10년간 지급되는 보조금은 ㎡당 300원(경장 990원)으로 ha당 매월 25만원을 받게되며 65세의 농업인이 2ha의 농지를 이양할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대상농지는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논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이외에도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밭·과수원 ▲3ha 이상 집단화면 지역의 농업기반 시설이 완비된 논·밭·과수원 등이 추가됐다.

그서나 2010년도부터는 65세 이상 70세 이하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70~74세인 농업인은 반드시 올해 신청을 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

▲경영 이양 보조금=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만65세 이상 74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이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게 된다. 김갑남 전남지역본부 농지은행팀장은 "고령 농업인은 직접 농사를 짓는 것보다 연금식으로 이익을 얻고, 전업농은 이를 이용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내년에는 신청자와 사업비가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의 (062-958-2341) /송기동기자 song@

"한국차 향기 좋고 된장찌개 구수해요"

독일인 8명 화순 전통한옥서 문화체험

독일인 8명이 화순의 전통 한옥에서 숙식을 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독일인 토마스씨와 베아트 부부, 클라우디아(외국인학교 교사), 도그마, 파나나씨 등 일행 8명은 지난 8일 화순군을 방문, 화순읍 신기리 성정숙씨 집에서 민박을 하며 생채가 손수 정제한 한국 음식과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연신 '좋아요'를 연발했다.

이들 독일인 일행은 생채 집에서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주인이 정성들여 끓인 한국 전통 차를 음미하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특히 구수한 된장찌개 맛에 매료됐으며 주인장의 친절함 다도(茶道)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고 동석한 사람들이 전했다. 전통 한옥 온돌에서 하룻밤을 묵은



이들은 이튿날 동구리 만연재 꽃길을 산책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독일인 일행이 화순을 찾은 건 값은 저렴한 한국 가정집 생활과 식생활 문화 등을 체험하고 꾸미기 없는 순수한 한국 문화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시설 고추'재배 소득 가장 높다

10a당 1,054만원... 노지재배는 무화과 '최고'

전남에서 생산된 2008년산 주요 농산물중 시설고추(축성)와 노지 무화과가 10a(300평)당 총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시설하우스와 노지에서 재배되는 56개 작목(753농가)의 농산물 소득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시설재배에서는 10a당 총소득이 1천54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호박 999만

3천원, 시설가지 988만2천원, 장미 943만8천원, 시설오이(축성) 913만6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노지재배에서는 무화과 433만6천원, 복숭아 430만1천원, 노지포도 363만4천원, 참다래 356만1천원 순으로 일반 밭작물 보다 과수분야가 소득이 높았다.

특히 최근 5년(03~07년)에 비해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35개 작목이었다. 50%이상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시설고추(축성), 시설호박(억제), 노지수박, 무화과, 복숭아, 시설시금치, 녹두 등 7개 작목이다.

이에 비해 수급 불안 작목인 양배추, 대파, 양파, 가을감자 등 19개 작목은 가격이 하락해 10%가량 소득이 감소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식품연구소 손장현 연구사는 "합리적인 영농설계와 경영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분자 특화작목 육성 장성 180농가 40ha 지원

장성군이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복분자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복분자 생산시설에 투자, 농산물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지역특산물로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복분자 작목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자격의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고려해 180 농가 40ha의 지원면적을 확정했다.

또 지난 2월부터 복분자 전정방법, 비료 시비방법, 하계전정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복분자 재배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재배기술 교육과 선진 현장시찰을 방문한다.

관료급 확보도 적극 추진한다. 도시민 방문객을 대상으로 복분자 수확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지역 소출제와 연계해 판매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보혜양조(주)와 구매계약을 체결해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전량을 판매하는 계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이청 장성군수는 "현재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을 공략한 지역특화 작목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성=류종선기자 yjs2@



영암군민 생활체조 시~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 군민들이 지난 11일 공설 운동장에서 강사의 율동에 맞춰 생활체조를 하고 있다. 영암군은 매주 월요일 밤 8시부터 1시간씩 생활체조(영암군 제공)

바닷물로 양파 노균병 막는다

농약방제때보다 생산비 크게 절감

신안 농기센터

바닷물을 이용해 농작물 병해를 방제하고 당도 등이 높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해수'의 이로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을 공략한 지역특화 작목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을 중심으로 농가에 적용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바닷물을 농업에 이용하는 방법은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조진언 농촌지도사가 생각해냈다. 조 지도사는 바닷물을 대파와 양파 밭에 뿌린 결과 양파의 노균병 방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당도가 향상되고 부수적으로 어린 잡초 방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 지도사는 "바닷물을 양파밭 10a당 300ℓ(15말)씩 4회 살포하면 적당하다"면서 "농약을 이용해 양파 노균병을 방제하면 연간 10a당 4만원의 경비가 들어 신안지역 양파 재배면적(800ha)의 절반인 400ha만 바닷물로 대체해도 연간 1억 6천만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양파 외에도 마늘·시금치·고추·파·수·벼 등 신안의 주요 작물에 대해서도 바닷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함께 성분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안=조만기기자 wncho@

무안군 '승달장학기금' 2013년까지 100억 조성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의 장학기금이 오는 2013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된다.

승달장학회 이사장인 서삼석 무안군수는 12일 "천재의 자원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학기금 확충을 통한 인재육성 의지를 밝혔다.

서 군수는 "2013년까지 무안 승달장학기금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 키우겠다"며 "장학사업을 통

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기존에 조성된 승달장학회 기금 12억원과 무안장학회 12억원을 합쳐 24억원으로 승달장학회의 기금을 확대하고 군에서는 매년 13억원씩 5년간 65억원을 기금으로 낼 계획이다. 나머지 11억원은 군민과 출향인사, 목자가 등의 도움을 받아 오는 2013년까지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다문화가정 시범통역사업 해남군 보건소 선정

해남군이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의 다문화가정 통역사업 시범보건의소 공모에 선정됐다.

해남군은 지난 2007년부터 보건소 등에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어 통역요원을 배치해 임신부 이주여성의 무료 수유교실, 구강검진 등 보건소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관내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이 349가구(자녀 432명)이며, 현재 69명이 보건소에 임신부로 등록돼 있다. /해남=박희정기자 dia@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층수
광안구	월계동	112940	19138	9층/11층
	남동동	891277	82829	5층/7층
	월곡동	105320	19138	7층/11층
남구	월곡동	33180	4818	2층/3층
	월곡동	112340	19138	7층/11층
	월곡동	129360	19138	1층/2층
	월곡동	10532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북구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서구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동구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월곡동	112340	19138	1층/2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전금부족시 최저금액 대출일선)·평도(이사)